

[P1 - 17]

대구지역 유방암 환자의 식습관에 관한 연구 : 환자-대조군 연구

김은정*, 최봉순, 이희자¹⁾

대구가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과, 계명대학교 의과대학¹⁾

The study on dietary habits of breast cancer women in Daegu : case-control study

Eun-Jung Kim*, Bong-Soon Choi, Hee-Ja Lee¹⁾

Dept. of food and nutrition, Catholic University of Daegu,
Dept. of medicine, Keimyung University of Daegu¹⁾

한국인의 식생활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식생활의 변화는 영양소 섭취의 변화를 가져와 탄수화물과 식이 섬유소의 섭취감소와 지방 섭취량의 증가를 가져왔다. 이러한 식생활의 변화는 고지방섭취증가 및 섬유소 섭취 감소를 초래하여 유방암의 발생 증가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며, 또한 생활양식 및 식습관의 변화로 인한 초경연령의 감소와 만혼 현상 및 초산 연령의 증가와 출산력 감소 및 모유수유 감소 등에 있어서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유방암의 발생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위험요인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. 식습관 및 식품 섭취율을 조사하여 한국인의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식이 섭취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 하였다. 연구대상은 2002년 10월 2일부터 2003년 6월까지 Y대학 유방센터에서 처음으로 유방암 진단을 받은 입원 여성환자 100명과 건강한 여자성인 100명으로서 일반적인 특성 및 식습관을 환자와 면담 및 설문지로 조사 하였다. 자료분석은 SPSS package program을 사용하여 설문지 신뢰도 분석, 교차분석을 하였고, 연령, 또는 폐경에 따른 효과조정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폐경유무에 따라 층화 분석을 하였다.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.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대조군(100명) 45.82세, 환자군(100명) 46.84세로 양군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, 환자군의 연령분포는 40대가 50%로 가장 많았다. 완전히 폐경이 된 경우가 대조군이 22명(22%), 환자군이 30명(30%)이었다. 젊을 때 비해 현재의 식사량에 거의 변화가 없는 자를 기준으로 증가된 자의 비차비가 전체여성에서 3.22(95% 신뢰구간 1.43-7.29), 폐경전여성에서 3.56(95% 신뢰구간 1.32-9.65)이었다. 식사시간이 일정한 자를 기준으로 불규칙한자의 비차비는 전체여성에서 2.86(95% 신뢰구간 1.27-6.44), 폐경전여성에서 2.65(95% 신뢰구간 1.05-6.72)로 유의성이 있었다. 하루 3끼 식사를 한 끼도 거르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거르는 자의 비차비는 전체여성에서 2.09(95% 신뢰구간 1.18-3.70), 폐경후 여성에서 5.21(95% 신뢰구간 1.34-20.35)이었다. 음식을 먹을 때의 식사속도가 10분 이내 인자를 기준으로 10분 이상인자의 비차비는 폐경전여성에서 0.47(95% 신뢰구간 0.24-0.91)로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. 외식을 안하는자를 기준으로 하는지의 비차비가 전체여성에서 0.43(95% 신뢰구간 0.22-0.82), 폐경후여성에서 0.10(95% 신뢰구간 0.02-0.46)으로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. 이는 좋은 식습관이 유방암의 발생 위험 확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. 따라서 좋은 식습관, 열량 및 영양소 섭취량이 낮은 집단의 경우 외식을 통한 영양보충, 과일류, 해조류, 면류 및 당류에 대한 기호도 변화 등이 유방암 발생의 위험 확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. 따라서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이 절실히 요구된다.